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의 코리안 드림

최태수

농경제사회학부 농업자원경제학 전공 석사과정

중·저소득 국가로 향하는 이주 노동자의 국외 송금액은 2019년 기준 5,480억 달러에 이르며, 이는 1,66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공적개발원조 총액의 3배 이상에 달하는 규모이다. 한국의 경우 취업 자격을 갖춘 이주 노동자의 수는 2022년 기준 449,402명으로 집계되는데, 이주민실태조사 분석 결과 이들의 48.9%가 연 1,000만 원 이상을 본국에 송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국경을 넘나드는 이주는 각국 노동의 풍경을 바꿀 뿐 아니라, 송금을 매개로 본국의 경제 전반을 뒤흔드는 거대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개별 가구의 차원에서 이주 노동자의 국외 송금은 남겨진 가족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본국의 가족은 수취한 송금을 어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이 그리는 미래는 어떠한 모습일까?

이와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아시아연구소의 현지조사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8월 16일에서 9월 4일 사이에 인도네시아에서 현지조사를 진행하며 추후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림-1] Cilacap 마을 풍경



현지조사의 대상지로는 한국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 이주 노동자의 규모가 가장 큰 Java 섬의 Cilacap 지역을 선정하였다. 이곳에서 이주 노동자의 본국 가족, 그리고 한국 이주 경험이 있는 12가구와 면담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이주 노동자의 본국 가족, 그리고 한국 이주 경험이 있는 가구 구성원과의 면담을 통해서 국외 송금과 이주 경험이 이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주 노동자가 자신의 급여 중 상당 부분을 본국의 가족에게로 송금한다는 점은 분명했다. 대다수 이주 노동자의 급여는 200만 원보다 낮은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송금 금액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에 달하였다. 특히 정착에 수반되는 비용으로 인하여 이주 초기에는 낮은 금액을 송금하지만, 이후 생활이 안정화되고 봉급이 상승함에 따라 송금 금액 또한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로 보였다.

이주 송금은 다양한 방면에서 가족의 생계에 기여한다. 다수의 피면담자가 송금을 식료품 및 집세 지불을 위하여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학원 등 아동의 사교육 목적의 지출 또한 활

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송금 수취 금액이 저축, 농업 용지 매입, 축산업 등에 대한 투자로 이어져 생산수단 확대로 이어지는 것 또한 도드라지는 특성이었다. 피면담자 A와 B, C는 투자 목적으로 근교의 농업 용지를 매입한 뒤 인력을 고용하여 쌀을 재배하고 그로 인한 수입을 고용한 인력과 배분한다고 하였다. 또한 A와 D의 경우에는 공동 투자자와 함께 송아지를 사육한 뒤에 명절 기간(Idul Fitri)과 같이 소고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때에 육우를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한다고 응답하였다. 더 나아가, 향후 인도네시아로 귀국한 뒤 시작할 가족 사업을 위하여 저축을 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 이들은 행사 음식점, 국숫집, 제과점을 차려 생계를 이어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본국의 가족이 받은 송금은 이러한 계획의 든든한 기반이 되는 것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에서 익힌 기술과 경험 또한 이후의 경제 활동을 위한 자원이 된다는 것이다. 경상도의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근무 중인 E는 인도네시아로 귀국한 뒤에 한국에서 배운 기술을 기반으로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는 업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라도의 김치공장에서 근무하면서 현장의 비법을 익힌 F는 인도네시아로 돌아온 뒤 남편과 함께 거주하던 집을 김치 공장으로 개조하고 2018년부터 김치 판매를 시작하였다. 이미 할랄(Halal) 인증을 받고 현지 슈퍼마켓 체인에 김치를 공급하고 있으며, 수출에 나서는 것이 꿈이라고 한다.

[그림-2] 이주 노동자 본국 가족과의 인터뷰



직접 개발한 설문지에 기반하여 이주 노동자의 본국 가족, 그리고 한국 이주 경험이 있는 가구 구성원과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대다수는 반갑게 맞아주었으며, 덕분에 편안한 분위기에서 면담을 진행할 수 있었다.

요컨대, 한국으로 떠나는 인도네시아 이주 노동자, 그리고 본국에 남겨진 가족에게 한국으로의 이주는 성공을 위한 투자로 여겨진다. 고향에 남겨진 가족은 이주한 이를 그리워하지만 동시에 수취 받은 송금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며 사업의 포부를 다진다. 요식업에서 정비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회가 도처에서 기다린다. 이주 노동자가 한국에서 몸으로 익혀올 근로의 노하우 또한 작지 않은 자산이다. 누군가는 업장의 비법을, 누군가는 근로에 임하는 태도를 학습해 온다. 체류 기간이 종료되어 인도네시아로 귀국한 노동자는 새로 마련한 자본금에 기대어 새로운 출발을 한다. 사업이 성공하면 자동차를 구매하고, 자택을 리모델링한다. 어떤 이들은 평생 소망하던 메카 성지 순례에 나서기도 한다.

실시간으로 이 과정을 목격하는 이웃들은 이주에 대한 꿈을 꾸게 마련이다. Cilacap 현지에서 한국으로의 이주는 성공으로 향하는 지름길로 통한다고 한다. Cilacap 남부 마을의 경우 마을 장정의 절반이 한국에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이른바 네트워크 효과이다. 고등학교

를 갖 졸업한 청년들이 ‘코리안 드림’을 가슴에 품고 한국어 학원으로 향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한국어 학원에서 작업장에서 자주 쓰이는 어휘를 암기하는 이들 중 상당수는 언젠가 한국에 올 것이고 일이 잘 풀린다면 체류 기간이 종료된 후에 새로 마련한 목돈과 사업 계획을 안고 귀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3] 한국어 학원의 주차장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원의 주차장은 오토바이로 가득 차 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청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곳에서 이주 취업을 준비한다.

이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주 노동자가 국내 기피 업종의 노동 공백을 얼마나 메꿀 수 있을지, 또는 이주민의 한국 사회로의 통합이 가능할지에 대해 열띤 논의를 벌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주 노동자를 떠나보낸 가족의 삶, 그리고 언젠가 이주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만들어 나갈 미래에 대해 상상하는 것 또한 의미 있지 않을까. 어쩌면 한국에서 벌어들인 돈과 경험을 갖고 본국으로 돌아가 사업 성공을 일구어낼 이주 노동자를 아름답게 보내주는 것, 이들이 일한 만큼의 값어치를 받고 건강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뜨거운 사회통합보다도 가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해 본다. 이번 조사를 지도해주신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의 이종욱 교수님, 그리고 현지 출장을 가능하게 해준 <아시아연구소 현지조사 지원 사업>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후기를 마친다.